CONTENTS

04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09 실개천과 금강-10

15 대청호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19

24 정책위원회 활동보고

24 교육 및 홍보사업 소개

27 대청호 골프장 건설 이슈

32 수변구역 해제 관련 성명서

34 네트워크 사업보고

37 대청호뉴스&뉴스

39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2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소식 vol.144

발행일 2024. 6. 24.
발행인 오용준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용욱
사무처 이강혁, 김재곤, 이용욱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김재곤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 화 (042)930-7340~1
전 송 (042)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하늘북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50
(042)628-2038

표지이야기 :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여름호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어느덧 뜨거워진 공기와 함께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다들 더워지는 날씨에 따라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을 위해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신동혁 상임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환경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 대표는 환경 운동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5월경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신동혁 상임대표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어린 시절과 현재의 환경 비교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상임대표, 신동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제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1970년대 남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남원은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자연환경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강물과 맑은 공기를 누리며 자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자연 환경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당시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물은 맑았으며, 산업화로 인한 오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자연 환경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깨끗했던 강물은 이제 오염되어 있고, 공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산업화와 환경 문제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 성장은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중금속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모두 산업화 정책의 어두운 그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화의 급격한 진행은 우리의 생활 수준을 높였지만, 동시에 자연 환경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맑고 청명했던 하늘이 이제는 뿌연 스모그로 덮여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배출 가스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은 우리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또한, 수질오염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맑았던 강물과 호수가 이제는 오염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장 폐수, 생활하수 등이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질오염은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식수원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환경운동 참여 배경

저는 1980년대에는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환경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훼손되면 우리의 건강과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화라는 것이 분명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 하지만 환경 쪽으로 봐서는 가장 짙은 그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알게 되고 저는 80년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환경 경제를 공부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30년 넘게 환경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단순히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모든 시민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환경 보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 강력한 환경 규제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환경 단체들이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인식을 높이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환경 보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는 정말 많습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경제 성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환경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한 환경 규제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환경 단체들이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 인식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환경 연구 필요성

특히 대청호 주변의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조사와 사람들의 경제활동, 환경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청호에 대한 정보 등을 보관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한 활동에 있어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청호보전운동본와 수자원공사,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대청호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기반으로 접근하여 환경 문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환경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나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환경 연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대청호 주변의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생태조사와 사람들의 경제활동, 환경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환경 운동, 환경 정책 등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청호보전운동본와 수자원공사,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환경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의 활동을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성찰과 미래 세대에 대한 메시지

산업화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자면, 공공의 참여가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미래 세대가 지금의 환경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이 있다면 미래 세대가 환경 보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환경 문제는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환경 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래세대에게만 무거운 짐을 넘기는것보다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가 좀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지속하여 지금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

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는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전하는 말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계속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 보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 보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소식지에서는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환경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시민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는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 보호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경은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여러분과 함께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찬샘천(가칭), 꿈을 안고 금강을 만나다

글_**문광연** 개구리 도롱뇽 그리고 뱀 일기 저자

찬샘마을의 뒷산에는 노고산성이 있습니다. 백제시대의 산성으로 계족산성 동쪽, 산 정상부에 길쭉한 모양입니다. 북문에서는 신탄진쪽에서 문의쪽으로 오는 적들을 감시하였고, 동쪽으로는 금강과 옥천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계족산성 측면과 배후로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는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동쪽의 신라 세력을 경계하는 기능을 가진 중요한 전략적 위치입니다. 서쪽은 급경사로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쌓았습니다. 또한, 고려 시대의 그릇 조각이 나온걸로 봐서 고려 시대에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참고】아무튼 걷고 보자

이런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 전투가 치열하여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동네에는 늘 피 냄새가 진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고산성의 위쪽 동네를 윗

산 정상에 있는 노고산성

정상에서 본 대청호 모습

핏골, 아래 동네를 아래핏골로 최근까지 불리었습니다. 핏골이라는 동네 이름은 처음 듣는 사람 뿐만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동네 이름에 대하여 협의를 했는데 그때 나온 이름이 바로 '찬샘마을'입니다. 지금은 개명을 하여 찬샘마을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이 사용한 찬샘

실제로 찬샘마을 아랫동네와 윗동네에는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먹었던 시원한 샘인 '찬샘'이 두 곳 있습니다. 지금은 이용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곳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곳은 큰산개구리, 도롱뇽, 무당개구리, 가재, 새들이 이용하는 샘이 되었습니다. 찬샘에서 나오는 물은 논에 물을 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계단 모양의 다랭이논이 있습니다. 다랭이논의 위쪽에는 큰 버드나무가 한그루 있고, 그 아래에는 물이 솔솔 솟아나는 작은 둠벙이 있습니다. 이 둠벙도 일년 내내 마르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개구리들의 겨울잠 장소가 되며, 철새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봄이 오면 온갖 생물들의 옹달샘이지요. 둠벙 주변에 샛노란 싹이 나올 때쯤 되면 제일 먼저 겨울잠을 자던 큰산개구리들이 깨어나 큰 소리로 울고 짝짓기를 합니다. 포도송이 같은 큰 알을 낳지요. 주변 산에서 겨울잠에서 깨어

찬샘마을 표지석

생태계의 보고 둠벙

찬샘천 (가칭)

하천공사를 한 찬샘천

난 두꺼비도 어슬렁 어슬렁 둠벙을 찾아옵니다. 두꺼비는 항상 같을 곳을 찾아 오는 놀라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목에 걸고 있는 염주처럼 생긴 긴 알을 낳습니다. 두꺼비 올챙이는 까만색이라 쉽게 구별이 됩니다. 새들도 물을 마시고, 물속에는 송장헤엄치게, 물방개, 물장군, 잠자리 유충들이 있습니다. 이름 모를 물풀들도 많지요. 물은 쉼 없이 솟아나 매마른 논을 적셔 줍니다. 고라니도 가끔와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십니다.

둠벙은 수생태계 뿐만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둠벙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둠벙을 없애고, 관정을 파서 물을 공급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골의 작은 저수지와 둠벙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메마른 논을 적시고 통과한 물 들은 작은 실개천인 찬샘천(가칭)으로 모입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한 오수는 마을 앞쪽에 있는 큰땡크에 모입니다. 이곳에서 펌핑을 하여 더 큰 곳으로 보내집니다. 이 오수들은 멀리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동하여 처리된 후 갑천과 금강을 통해 서해바다로 갑니다.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찬샘천은 작지만 깨끗합니다. 이곳에는 가재, 우렁이, 다슬기들이 자라고 물 옆에는 미나리, 여뀌등 많은 물풀이 자랍니다. 이 물풀들도 수질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실개천을 가만히 보니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옆에는 큰 돌들이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옆의 안내판을 보니 하천정화사업으로 생태적 하천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태적 하천은 바닥이 모래와 돌과 흙으로 이루어진 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하천이지요. 앞으로 더 생태적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오수를 펌핑하는 곳

찬샘마을에는 요즘 유치원생, 초등학생등 많은 아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절미만들기, 트랙타타기, 토끼관찰, 올챙이관찰등 많은 체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맞는 체험도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의 함

자연형 하천 찬샘천

대청호 주변의 수변식물

찬샘천이 들어가는 대청호

성으로 동네는 항상 축제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유아원, 유치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체험활동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만지고 했지만, 지금은 태어 나자마자 핸드폰, 노트북, TV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 이런 체험의 기회가 적습니다. 이런 환경을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체험은 샘, 논, 둠벙, 저수지, 실개천의 중요성과 물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물속에 살았습니다. 양수라는 안전한 물속에서 10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개구리들도 알-올챙이-유생 시절은 물에 있지요. 그러고 보니 모든 생명체는 어린 시절에 모두 물에서 시작하여 살아갑니다. 물이 우리의 고향인 샘이지요.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생태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빛, 흙, 공기 그리고 물이지요.

이런 찬샘천의 물이 모여 바로 대청호로 들어갑니다. 대청호 물은 많은 곳에서 시작한 실개천이 모여 큰 금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찬샘천, 오늘도 꿈을 싣고 금강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글_**여규용** 6기 대청호해설사

봄이 온다고 분주하게 설레이던 마음도 벚꽃이 지고 나니 희미해져 버렸다 그 동안 숲은 조용조용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그 모습이 유난히 아름답게 보이는 계절이 되었다. 이렇게 소리 없이 가고 오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사연들로 가슴에 돌부리를 키우며 살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연초에 세웠던 작은 계획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혹은 그사이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여 처음 마음먹었던 계획이 틀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 보고 챙겨야 할 시점이 되었다.

예년만큼 학교 수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남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여 시간 나는 대로 대청호 주변을 맴돌았다. 이상하리만큼 자주 찾는 곳이 되어

다른곳에서 보기 힘든 왕버드나무

버린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경이 내게는 고향 같은 아늑함이 있다. 가득한 푸른 물결을 바라보는 시간은 내게 부족했던 삶의 진솔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고 마음을 다독이며 채우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내게 대청호는 사랑스런 곳이 되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평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대청호는 단순히 우리가 먹는 물만 공급해 주는 물그릇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한 쉼터를 제공해 주는 휴식 공간 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대청호를 우리는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묻고 싶다. 말로는 소중하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그러지 못하는게 아닌지 잠시 돌아보자. 인간의 욕심으로 버려지고 망가지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 보자고 이야기하고 싶다. 봄날 흐드러진 벚꽃길을 행복하게 거닐었던 기억을 가지고 다시 찾은 대청호는 봄날의 그런 풍경이 아니었다.

대청호를 중심으로 제일 아름다운 길,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 쉼을 하는 곳인 일백미로 이름 붙여진 벚꽃길의 아름다운 구간에 공원을 만든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쌓여있는 공사용 자재 더미와 수시로 드나드는 중장비의 굉음 그리고 공사 인부들의 분주한 모습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흥진마을 길을 역으로 걸어 본다. 조선오리 식당 앞을 돌아서 호수를 끼고 걷는 발걸음이 무겁다.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호수의 아늑한 풍경이 그런 마음을 위로라도 해 주려는 듯 시원한 바람을 불러와 옷깃을 흔들고 간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수고 만들고 바꾸기를 좋아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치적을 남기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자연을 아끼고 소중하게 보전하야 한다는 사실 조치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푸르게 잎을 피운 호숫가를 걷는 발걸음이 이런 저런 생각들로 무겁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함에 미안하고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흥진 마을길을 거꾸로 한 바퀴 돌아 신상교 앞으로 돌아 나왔다. 여전히 푸른 물결은 잔잔한 파도를 만들고 그 위를 달려오는 바람은 마냥 포근하다. 물속 깊이 가라앉은 모세길이 있던 자리를 눈대중으로 가늠해 보며 이미 하얗게 핀 버드나무의 꽃가루를 피하여 신상교 아래로 접어든다. 호수 물빛은 흐리고 물가 나무 그늘 아래는 쓰레기들이 떠 다닌다. 상류 마을에서 혹은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이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들이 분명하다. 눈살을 찌푸리며 신상교 언저리를 걷는다. 주차되어있는 차들 사이로 보이는 것은 여전한 쓰레기 더미들이다. 아마도 이곳에 차를 세우고 놀다가 가지고 왔던 쓰레기들을 버리고 간 것이 분명하다. 벚꽃길 주차장의 공사 현장을 보고 상했던 마음이 이곳 쓰레기들을 보며 더 큰 상처를 입었다. 예전의 물억새길로 아름답고 유명했던 흥진 마을길이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이 망가지고 사라졌음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호수쪽에 있는 곳으로는 집들이 하나 둘 지어지고 드나드는 길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전에 없던 커다란 카페도 생겼고 그곳을 찾으려고 수시로 드나드는 자동차들의 소음도 엄청남을 느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돈

명상정원길에 만들어 지고 있는 데크길

많은 사람들의 치열한 로비로 그들만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기후 위기도 환경보전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로지 돈버는 일에만 집착할 뿐이다.

그렇게 아쉬운 맘으로 둘러보고 한 달쯤 지난 후에는 명상정원길을 찾았다. 예전부터 이곳은 사람의 손이 유난히 많이 탓던 곳이라 변화가 많았었는데 찾았던 그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쉼을 하고 있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명상정원길이다. 요즘 그곳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대전지역의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복지관등에 계시는 분들이 바람도 쐴겸해서 운동 삼아 많이 찾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대청호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평안하게 위로해 주는 소중한 곳이라는 것은 예전과 지금도 변함이 없다.

잠시 마음을 평안히 하고 걷기를 시작한다. 여전히 바람을 상쾌하고 물결은 반짝이는 윤슬로 아름답다. 명상정원길 바로 옆에는 커다란 카페가 들어섰다. 이곳도 인간의 욕심을 피해 갈 수는 없었던 거다.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들어선 카페는 날이 갈수록 번창 할 것이고 먼 훗날 대청호 물을 오염 시키는 주범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 카페 앞으로 새로 만들어 진 데크길이 길게 어어지고 그 길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지 모른다. 평안한 쉼이라는 이름으로 나날이 어지럽혀 지는 대청호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 걸어 들어간 명상정원길에는 또 다른 데크길을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대청호 명상정원길이라는 커다란 조형물 앞으로 만들어 지는 데크길과 호수를 둘러싸고 만들어질 모양인지 여기저기 쌓여있는 건축 자재는 이곳 명상정원길의 미래 모습을 보여 주는 듯 했다. 왜 이러는지 모를 일이다. 데크길이 없어도 걷기 좋은 곳이었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그것을 만든다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나는 찾지 못하겠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진다.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힘없이 바라만 보아야 하는 내 자신이 참 허무하기만 했다.

시간이 지나면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고 지금의 이런 마음을 나누고 간직할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자연스런 풍경속에서 바라보는 대청호 물결과 데크길이 가로막아서 거기서 보이는 대청호 풍경 중에서 어느것이 더 아름다운지는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이곳 대청호를 찾았을 때가 생각난다. 지금 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풍성한 숲이 반겨 주던 곳이었던 이곳이 왜 이렇게 헐벗을 모습으로 변해 버린 건지 도무지 알수 없다. 다만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만들어 낸 현실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다. 딴에는 시민들을 위한 답시고 한 일이겠지만 또 그렇게 변명을 늘어 놓겠지만 그런 변명들이 파괴된 대청호의 순수함을 잃어 버린 지금은 그저 자기를 위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안타까운 마음을 억지로 달래며 호숫가로 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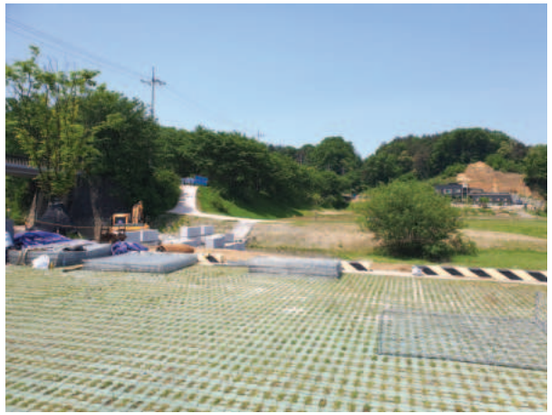
명상정원길 거위분변

보았다. 전에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김 없이 거위의 분변으로 호숫가는 어지럽혀 있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개의 분변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분명 거위의 배설물이다. 조심조심 걸어야 한다. 자칫 무심하다가는 거위분변을 밟

여전히 아름다운 명상정원 풍경

영화촬영 안내판

일백미길 공사현장



아서 그 발로 차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건너편 커다란 식당에서 방목하는 거위라는데 이제는 주인도 있는지 없는지 통제불능인 거위무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접근을 해도 오히려 주인노릇이라도 하려는 듯 목을 바짝 세우고 경계를하는 모습을 보면 그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어떨 때는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고 한다. 명상정원길 끝에는 각종 시설물들이 설치되어있다. 영화촬영을 알려주는 것들이 제일 많은데 설치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보수를 하지 않았는지 지금은 많이 망가지고 인쇄 내용도 흐릿해져서 초라해져 있다. 데크길을 만드느라고 부산을 떨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둘러보고 낡은 시설물을 보수할 계획은 왜 세우지 않는건지 묻고 싶다. 이왕 설치했으면 눈살 찌푸러지게 하지말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쉼터라는 것을 느끼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호수를 건너온 바람은 여전히 시원하다. 반짝이는 윤슬도 변함없다. 우람하게 서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왕버드나무도 여전하다. 그렇게 소리없이 자리를 지키며 인간의 무지함을 나무라지 않고 있는 대청호가 고맙고 미안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반겨 줄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런 마음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에 하나둘 전이가 되어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청호를 지켜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먼 훗날 미래 세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지키고 보전하였노라고 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청호 생태탐방 등 다양한 사업 활발!

글_**이강혁**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올해도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맹승진)의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정기총회가 개최되던 날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 정책연구위원회는 연구과제를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로 정하고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는 정책연구위원회 내에 '2024 총선 대청호 정책의제 TF'를 구성하여 정책의제를 마련하여 대청호 유역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질의한 후 결과를 취합하여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현안모니터링으로 대청호 골프장 예정지 생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와 함께 '생태전문가가 안내하는 대청호 생태탐방'을 추진하고 있다.

2024 총선 대청호 정책의제 TF 활동은 지난 2월 말부터 TF팀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대청호 유역 물환경 정책의제를 ①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 필요, ②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취지 존중과 개악 반대, ③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근절 시급, ④ 상수원관리지역 보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 등 4가지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청호 유역 총선 후보자 61명에게 정

책질의서를 보내고 수용의사를 확인하였다. 이후 언론에 보도자료를 송부하였고 기사 및 라디오 인터뷰 등이 진행되었다.

올해 연구과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라는 연구명으로 진행되고 있다. 1차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연구과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22년 사업 및 활동 성과를 근거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바 운동본부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이해가 있는 연구진 구성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연구책임자를 김종남 전 집행위원장 및 정책연구위원장(사회학 박사)으로 확정하였다. 지난 4월 24일 개최된 2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과제 착수보고회 겸 자문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사업 성과지표가 개발되면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사업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의 날인 지난 6월 5일에는 '조삼래 교수님이 안내하는 대청호 생태탐방'이 개최되었다. 새 박사로 TV 동물농장 등 각종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공주대학교 조삼래 명예교수님께 대청호의 새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대청호 오백리길 탐방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영표, 이상진 등 정책연구위원분들, 금산네트워크 길윤현 대표 및 회원분들, 윤정원 총무 등 대청호 해설사 분들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청호 오백리길 4구간인 호반낭만길의 일부를 걸으며 조삼래 교수님의 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다양한 새를 관찰하고 소리를 들으며 뜻 깊은 생태탐방을 하였다. 투기, 소각이 심각한 지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

생태전문가가 안내하는 대청호 생태탐방은 8~9월 경에도 2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생태탐방에서는 물고기 박사인 홍영표 정책연구위원과 식물 전문가인 유진수 정책연구위원이 물고기와 식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물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교육 프로그램 소개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안녕하세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회원 여러분!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미래세대의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고,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호 해설사 소모임을 통해 대전과 청주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 환경 지킴이단과 찾아가는 물환경 교실입니다.

물 환경 지킴이단

물 환경 지킴이단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물 환경 보호 활동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존중과 생태계 보호 : 학생들은 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배우고, 물이 생명수로서 꽃과 나무를 살리는 과정을 탐구합니다. 이를 통해 생명존중과 생태계 보호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물 여행 체험 : 우리가 먹는 물이 대청호에서 정수장까지 이르는 여정을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환경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환경 교육 :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물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를 통해 물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현장 체험 활동 : 대청호 주변의 생태계 탐방, 수질 검사 등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직접 물 환경을 접하고 배우게 됩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물 환경 보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물환경 교실

찾아가는 물환경 교실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물 환경 교육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맞춤형 교육 : 각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 내용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실습 중심의 수업 :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물 환경 문제를 체험하고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 강사 파견 : 대청호 해설사 소모임의 전문 강사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강의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물환경 교실의 교육 내용

찾아가는 물환경 교실에서 사용하는 PPT 자료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학생들이 물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의 중요성 : 지구상의 담수 중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약 1%에 불과, 물 관련 질병으로 매년 약 3,575,000명이 사망하며, 15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합니다.와 같은 물의 중요성과 기본적 지식을 교육하며 지구상의 물 분포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의 양에 대한 설명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물 발자국(Water Footprint) :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물 소비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EX) 우유 한 잔에는 255리터의 물이 사용되고, 청바지 한 벌에는 11,000리터의 물이 사용됩니다.

물의 순환 : 물의 순환 과정을 통해 자연에서 물이 어떻게 이동하고 변하는지를 설명합니다.

◆ 동물, 식물, 호수, 강, 바다, 구름, 빙하, 지하수 등의 물 분자는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순환합니다.

알뜰한 물 사용법 : 일상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 양치컵 사용으로 4.8리터의 물 절약, 샤워 시간을 1분 줄이면 12리터의 물 절약 등.

수돗물의 가치 : 수돗물의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강조하여 수돗물 사용을 권장합니다.

◆ 대한민국 수돗물은 250개 이상의 수질 검사 항목을 통과하여 안전하고, 미네랄이 풍부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찾아가는 물환경 교실은 학생들에게 물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미래세대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의 중요성

이 두 프로그램은 모두 미래세대가 물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이러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깨끗한 대청호와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앞으로도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는 미래세대들의 환경교육에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하겠습니다!!!

파괴되면 다시 만들 수 없는 숲, 풍부한 다양성 있어 멸종위기종도 지켜내

골프장반대대책위, 28일 자체 생태조사 진행…새로운 부지서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 발견·숲 생태 가치 높이 평가

글_옥천신문 **양유경** 기자(vita@okinews.com) 2024년 6월 7일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길이라면 멧돼지가 지나다닌 흔적을 따를 도리밖에 없는 숲으로 들어간다. 눅눅하게 젖은 나뭇잎을 밟을 때마다 포슬포슬 나비들이 날아오르고, 멀리서 찍찍대는 소리와 함께 다람쥐가 가까이 오는 듯하더니 잠깐 멈칫하고선 다시 나무들 사이로 사라진다.

보통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숲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관심이 없는 게 더 유익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산속에선 쓰러져 있거나, 서 있으나 수명을 다해 버섯이 자리 잡은 나무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나무가 저절로 스러지는 일은, 숲이라는 생태계 안에서의 죽음은 순환의 과정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죽거나 죽어가는 나무는 새의 집이 돼 주기도 하고, 애벌레의 먹이가 되기도 하며, 버섯을 통해 부식돼 숲의 양분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베이고 밀리는 죽음은 다르다. 가만히 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지만, 정작 나무를 아끼지 않는 것은 사람이다.

■ 양수림 → 음수림 성숙해가는 숲, 골프장예정지는 참나무류 주된 '상림'…"생태·기후변화 역행하는 개발 대신 우량숲 보전하는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고민해야"

지난달 28일 대청호 골프장 반대 범유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측 전문가와 주민들이 동이면 지양리 골프장 예정부지(27홀, 36만평 규모) 내 식물생태조사에 나섰다. 대책위는 그간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사 측이 단 두 차례의 조사로도 발견할 수 있었던 멸종위기종들(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새호리기 등)에 대한 정보를 평가에서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생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대책위가 동의할 수 없는 조항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비판하며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옥천신문 2024년 5월17일자 1742호 '골프장예정지 공동생태조사, 결국 '무산'' 기사 참고).

28일 당일 대책위 측 전문가들은 곤충과 식물의 분포, 야생동물 현황 등을 두루 살피며 조사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멸종위기종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어주는 숲 자체였다. 숲이 안정화하는 상황인 만큼 종 다양성도 보장될 수 있어 숲 자체가 가치 있는 환경자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숲은 '천이'라는 자연적인 변화를 거친다. 땅에 이끼류와 초본류가 나타나고, 키 작은 나무들이 살기 시작하다 빛에 강한 소나무 같은 양수(陽樹)가 먼저 자란다. 양수가 빛을 머금으며 뻗어갈 때, 아래로 그늘을 인내하며 자란 신갈나무와 갈참나무 같은 참나무류의 음수(陰樹)가 자라면서 숲이 울창해진다. 이후 숲에서 점차 음수가 주를 이루고, 가장 그늘에 강한 서어나무나 너도밤나무 같은 수종이 최상층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숲은 생태계가 가장 성숙하고 안정화된 마지막 단계인 '극상림'으로 향해간다. 이렇게 숲이 자라기까지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숲이 망가진다는 것은, 지나온 시간을 무력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 예정지 내 숲은 2차천이 초기 단계로서 신갈나무 군락, 참나무 군락을 살펴볼 수 있는, 극상림 전의 '상림'에 속한다. 조사단은 당일 숲의 성숙도를 가늠하기 위해 골프장 예정지 내 산림 나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18m 정도로 높게 뻗은 상수리나무(둘레 126.5cm, 직경 40.2cm)부터 신갈나무(둘레 211cm, 직경 65.2cm), 느티나무(둘레 201cm, 직경 63.4cm), 참나무(둘레 149.9cm, 직경 48cm), 밤나무(둘레 134cm, 직경 42.7cm) 등 다양한 종류의 교목을 관찰할 수 있었다. 흉고 직경 측정법은 나무의 대체적인 나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조사에 참여한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특정 나무의 경우 수령이 30년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안정된 숲을 이루기까지 50여년 이상 걸려 식물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전충남생명의숲 안재준 사무처장은 "생태자연도 2등급인 골프장 예정지 일대는 정의된 바대로 개발을 최소화하고, '보존'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지역이다. 이 중 산림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 비가 내렸을 때 땅이 머금고 있는 수분의 양이 많아 산불 예방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산림이 안정화하는 만큼 탄소흡수량도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라면서 "무엇보다 최근 산림은 휴양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산림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활발히 하고 있다. 골프

골무꽃

박쥐나무꽃

산부추

족두리꽃

장 예정지가 생태관광지구로 포함돼있는 만큼, 골프장을 지을 게 아니라 생태관광 차원에서 숲을 보존하고 공존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앞서 살펴본 나무 분포뿐만 아니라 숲의 다양한 지형도 종 다양성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정지 내 산림 상단부에는 아래로 죽 이어지는 계곡이 형성돼 있다. 산을 오르던 조사단은 물길 중간중간 작게 고인 웅덩이에선 맑은 물에서만 사는 1급수 지표생물인 엽새우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조금 더 올라가자 울창한 나무를 둘러맨 채로 깊게 형성된 계곡부를 마주할 수 있었다.

유진수 사무처장은 "예정지 내 숲은 계곡처럼 여러 지형을 포함하면서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다. 계곡이 있는 만큼,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사방댐 같은 시설을 만들며 물길을 막고 수질정화식물을 심는 식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기서 오염수를 처리한대도 비점오염원처럼 주변에서 계속 오염이 진행될 것이다. 무엇보다 계곡이 막히게 되면 생물들의 서식환경은 교란될 수밖에 없다. 자연은 어디까지 딱 잘라서 개발하고 살리고 할 수 없는 하나의 '생태계'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윤여창 명예교수는 "큰 참나무류가 많이 자라고 있다는 건 숲이, 생태계가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을 만든다고 할 때 이런 자연생태계가 교란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등 지역 생태환경 차원에서나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나 역행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라면서 "우량 숲을 보전하는 데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조례로 만들고, 금강수계기금이 이런 지원책에 활용되게 함으로써 지역이 산림을 관리하며 생태관광을 추진해갈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봐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 애기뿔소똥구리·시가도귤빛부전나비 등 곤충·식물 관찰한 대책위

종다양성이 유지되는 숲에서 조사단은 조사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를 금새 발견하기도 했다. 지난해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된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다시 개체가 발견되면서 서식지가 넓게 분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다시 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드물게 볼 수 있는 시가도귤빛부전나비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숲속에 비교적 드물게 자라는 박쥐나무 군락도 발견할 수 있었다.

10년 전 주민들의 반대 끝에 골프장이 들어서지 못한 가운데, 시간을 번 숲이 그동안 더 울창해지고 다채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십 년째 옥천을 포함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이어 온 황재현 생태사진가는 "사슴벌레를 예로 들자면, 이 부근에서 20년 전엔 한 종류를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세 종류로 늘어난 데다 나무도 많이 자랐다. 숲이 그만큼 안정화되고, 종이 다양해진 것이란 지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번에 진행한 식물 및 곤충 조사를 시작으로 계절별, 생물종별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신문 기사를 사용하게 해주신 옥천신문 양유경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애기뿔소똥구리

시가도귤빛부전나비

대청호 상류 수변구역 해제 등에 대한 성명서

최근 환경부에서 450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 상류에 수변구역 해제와 함께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14만3천㎡ 규모(옥천군 6개 읍·면 7만1천㎡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2천㎡)의 수변구역이 해제되고,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수변구역은 환경부가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은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청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 해제 문제는 450만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 보전과 뗄 수 없기에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먼저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와 상수원 관리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음식점, 카페, 관광숙박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청남대에는 음식점 영업 및 모노레일 설치, 청소년수련원 신증축사업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옥천 장계관광지에는 관광휴양시설 조성한다고 한다. 수변구역 해제 또는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 개정이 바로 개발로 이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에 옥천군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확대를 통한 조치이다. 하지만 합류식 하수관거의 경우 우수토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폐수 등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 또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농업 최적관리기법(BMPs) 등을 지원하여 비점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 또한 꼭 필요한 조치이다. 이와 같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면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450만 충청인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난개발, 막개발은 안 된다!

수변구역이 해제되고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는 것이 난개발로 이어지면 안된다. 옥천군은 현재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막대한 외부자본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보다 국가생태광광지역과 어울리는 생태관광이 필요하다. 이전의 장계관광단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침체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닌 점을 상기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난개발, 막개발은 결국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에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함께 기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수질오염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2.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등 수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3.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난개발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4년 5월 17일

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영동네트워크

나만의 그림을 넣어놓다

글_**이미나** 영동네트워크 팀장

겨울이 지나 봄이 없이 여름이 온 듯 합니다. 기후변화 위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 영동네트워크에서는 많은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진행이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용산면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양강면 죽촌리마을 그리고 상촌면 새마을협의회와 함께하여 3차례의 하천정화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용산면 새마을문고와는 흙공만들기 또한 진행한 상태입니다.

환경교육으로는 상촌면 궁촌1리 마을주민들과 함께 에코백 꾸미기, 천연주방세제 만들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4.23에는 3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 홍보관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홍보관 관계자의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유익한 견학이 되었습니다.

보은네트워크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마을만들기

글_**육예화** 보은네트워크 팀장

보은네트워크에서는 매년 거버넌스 협의체 회원들과 회원마을인 회남면분저리, 산수리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정화활동, 환경교육, 대청호 수변 불법낚시하는곳을 위주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수변 마을주민들로 매년 정화활동과 환경교육을 진행함으로 대청호 수질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로하신 마을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마을을 깨끗이 하시려하고 솔선수범하여 정화활동에 참여하셔주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을주민들과 화합하여 대청호 수질과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보은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무주네트워크

눈 높이에 맞는 환경교육

글_**전선화** 무주네트워크 팀장

지역주민들과 회원마을 주민들과 함께 맑은 대청호 만들기를 위한 사업이 24년 올해도 무주 네트워크에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내기 철 농번기를 피해서 각 마을의 이장님들과 미리 일정을 잡았기에 모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무주네트워크에서 올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소유역 거버넌스 사업과 회원마을 가꾸기, 구량천맑은물만들기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의 대상지 선정은 작년 연말에 운영회의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 회의를 갖고 관심이 있는 마을의 신청을 받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또 신청

마을에 대한 마을 답사를 통해 어떤 오염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각 마을에 이장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도가 높은 마을을 선정해 주민주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주된 흐름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원해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상호 협력적일 수밖에 없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주네트워크에서 진행되는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 제품 만들기, 주민 환경교육, 친환경 제품지원, 하천 정화 활동, 농약 빈 병 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수목식재,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가시박 제거 활동 등입니다.

3월22일 상길산 마을(하천 정화 활동, 친환경제품 만들기) 시작으로 4월15일 하장백마을(하천변 수목식재,하천정화활동) 4월16일 하굴암마을(하천변 수목식재,하천정화활동,EM흙공 던지기) 5월21일 상굴암 마을(주방 비누 만들기), 5월 22일 구량천맑은물 만들기(주방 비누 만들기 및 하천 정화) 활동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마을주민들과 함께 대청호 맑은 물 만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옥천네트워크

맑은 금구천 만들기

글_**오희진** 옥천네트워크 팀장

옥천네트워크(대표 유태식)의 활동 중 “맑은금구천 만들기”는 환경사랑모임의 주관으로 금구천 정화활동을 진행합니다. 올해 총3회 진행예정입니다.

맑은 금구천을 위해 2024년에도 환경사랑모임의 정화활동은 계속됩니다.

1차는 3월 4일(월)에 삼양초등학교 주변 금구천에서 시작해 옥천장터까지 주민 이동이 많은 구간을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과거에는 금구천 주변에 생활쓰레기를 버려놓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금구천 지킴이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환경사랑 모임입니다.

추후 활동은 휴가철과 늦가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청호 뉴스 & 뉴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수변구역 해제 전 오염방지 대책부터"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대청호 상류 수변구역 해제 등과 관련 "450만 명이 마시는 식수원 대청호의 수질과 뗄 수 없기에 수질오염 방지 대책 마련을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수변구역 해제와 상수원 관리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음식점, 카페, 관광숙박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또 수변구역 해제 또는 상수원 관리 규칙 일부 개정이 바로 개발로 이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옥천군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 합류식 하수관거의 경우 우수토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폐수 등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 또한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며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은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난개발, 막개발은 결국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대청호 수변구역 14만3000㎡ 규모(옥천군 6개 읍·면 7만1000㎡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2000㎡)가 해제되고,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출처: 2024년 5월 19일 중도일보 임병안 기자

‘대청호 골프장’ 건설 갈등 증폭

대청호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 업체와 환경단체가 합의한 공동 생태조사가 무산되는 등 대청호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청호 골프장 반대 범유역대책위원회’(대청호골프장대책위)는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 ㄱ개발이 일방적 합의 강요 등의 행태로 공동 생태조사를 무산시켰다”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심의를 진행하는 충북도가 골프장 건설을 불허해 충청권 식수원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청호골프장대책위는 대전·세종·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등 대청호 주변 충청권 환경·시민단체 62곳이 참여하고 있다.

박종순 대청호골프장대책위 집행위원은 “ㄱ개발이 제시한 합의서를 보면, ‘공동 생태조사단 운영 기간이나 해단한 이후 사업을 저지하거나 공사 방해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있다”며 “조사와 사업 저지는 별개인데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을 넣어 공동 조사를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ㄱ개발 쪽은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7차례 공동 생태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했는데 환경단체 쪽이 합의서를 문제 삼으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더는 사업을 늦출 수 없어 절차대로 추진한다. 다만 오는 6~7월께 진행할 환경영향조사 등 공동 조사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밝혔다.

ㄱ개발 쪽은 오는 2026년까지 1700여억원을 들여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산56 일대 119만3137㎡(약 36만평)에 27홀 규모 골프장을 지을 계획이

다. 하지만 대청호골프장대책위는 골프장 예정지 일부가 대청호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등에 포함되는데다, 예정지 곳곳에서 멸종위기 2급 팔색조·애기뿔소똥구리 등이 서식하는 등 '생태계 보고'라며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업체와 환경단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환경부, 충북도 등도 고민에 빠졌다. 윤정기 충북도 도시계획팀장은 "대청호 골프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 분야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계획"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2024년 5월 13일 한겨레신문 오윤주 기자

"대청호 수변구역 해제, 수질오염 대책 마련하라"

대청호 상류인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의 일부 수변구역해제에 대해 금강수계 수질오염 우려가 제시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옥천군 옥천읍과 동이·군북·안내·안남·이원면 등 6개 읍면 107필지 7만1026.1㎡와 영동군 양강·심천면의 93필지 7만2365㎡에 대한 수변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옥천군 이 지역은 음식점이나 카페,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양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어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공공목적의 청소년 수련원 신·증축, 모노레일 설치·운영, 공장·주택의 용도 변경, 바닥면적 150㎡이하 음식점 허용 등이 담겨있다"며 "금강수계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수변구역 해제를 한 지역은 2002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묶인 금강 상류 지역이고 충청권 450만 식수원인 대청호의 상류다. 그래서 환경부가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금강유역의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보다 우선해 설정한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강유역의 수질개선과 관리를 위해, 도시민들의 무분별한 행락행위를 막기 위해 주민·환경단체들이 지금까지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련은 "22년 동안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주민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행정은 부화뇌동 할 것이 아니다. 행정은 수변구역 해제로 인한 충청권 식수원 오염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개발, 막개발이 아닌 수질보호와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계획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자자체장의 소임임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환 도지사에 대해 "해마다 갱신되는 여름 기온, 피해를 예상할 수 없는 폭우·폭설, 미세먼지로 가시권이 확보되지 않고 맘껏 숨소차 쉴 수 없는 대기 등으로 도민들은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청남대가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수질오염과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2024년 5월 2일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무주군

농촌체험학습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

무주군이 2024년 농업인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19일 농촌체험학습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희망 교육 설문조사 결과1위)을 개강했으며 오는 5월 2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론 및 실습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농촌체험학습지도사'는 농가에서 교육농장과 체험농장 등 체험과 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로,

이번 자격증 취득 과정은 △농촌체험프로그램의 이해와 △농촌체험 운영 준비, △상품개발, △스토리텔링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 운영·실습 체험, △농촌체험 상권분석의 이해, △마케팅 전략을 알아보는 등의 시간으로 마련된다.

지난 19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2층에서 개최된 개강식에서 수강생 장강현(안성면 거주, 34세)씨는 "농촌 체험이 곧 농촌관광 활성화의 기반"이라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고 싶어 신청했는데 자격증까지 딸 수 있다니 무척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반딧불 농특산물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무주군 농업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꾀할 방침이다.

금산군

금산군,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 수립 나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에너지 전환 실현 목표

금산군은 에너지정책 역량을 강화해 탄소중립 에너지 선도 도시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번 계획 수립 방향은 지역 특성 및 에너지 수요 전망 등 지역에너지 분석을 통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군의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및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국가 및 충남도 사업과의 연계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심완보 금산부군수 주재로 관계 공무원, 자문위원단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군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방향·추진전략 수립, 충남도의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에 따른 탄소중립경제의 실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발굴을 통한 상향식 에너지 계획 수립 및 달성 방안☒기대효과 분석 등을 과업으로 수행한다.

이날 연구용역 추진 방향 보고와 함께 군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목표, 안정적 에너지 공급 대책,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대책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도 이뤄졌다.

심완보 부군수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의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에 나선다"며 "정해진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심천면 새마을협의회, 금강천변 환경정화 활동 펼쳐

충북 영동군 심천면 새마을협의회(회장 박정용·부녀회장 민정애)는 지난 10일 금강천변길에서 제초작업, 가시박 제거 및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새마을협의회 회원 20여명은 이날 동트기 전 새벽부터 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천면 새마을협의회는 4대강 사업길의 아름다운 자전거길로 유명한 날근이~옥계리~구탄·장동길 구간의 환경 정화로 방문객들에게 청정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

박정용 회장·민정애 부녀회장은 "더운 날씨에도 함께 고생하며 작업한 회원들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심천면을 위해 환경 정화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사)옥천순환경제공동체

2024 옥천주민참여정책학교 2강

6월 10일 월요일 늦은 저녁 6시 30분 옥천주민참여정책학교 2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상철 공동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님을 모시고 '버스의 공공성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대중교통을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것입니다. 대중교통의 공급량을 늘려야 하고, 가급적 도시의 구조를 공공교통이 편리한 도시구조를 만드는게 필요합니다.

저상버스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대라도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판이 바뀜이다.

아이들, 어르신들에게서 '왜 이렇게 편해요' 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희 지역 옥천에서도 저상버스 운행이 빠른 시일 안에 도입되길 바라며, 다음 주 화요일 진행되는 3강 '저상버스와 장애인 이동권, 그리고 옥천저상버스 도입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옥천군

옥천군! 대청호 불법 수상레저활동 차단...

충북 옥천군은 450만 지역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대청호 수온이 상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 취미활동 목적의 수상 오토바이 등 물놀이 활동이 본격화되고, 불법 영업행위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 수상레저 영업이 의심되는 6개 지역을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4개 부서와 옥천경찰서가 지난주 합동으로 지도·단속 했다.

현장에서 국유지 무단 사용,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을 확인해 국유지 및 수면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했으며,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군이 불법 시설물 철거 명령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4월 선박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 및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행위자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군 수변구역 내 불법으로 영업행위 중인 10여 개의 카페, 숙박업소 등도 식품위생법 및 금강수계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천기석 환경과장은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수년째 이어온 불법 수상레저 사업, 다슬기 채취, 낚시 등의 행위에 대해 옥천경찰서, 공유수면 관리자인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합동단속 등을 실시해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조치로 대청호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세종보 공주보 재가동 중단 보 처리방안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복구 물정책 정상화 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

세종보 수문을 개방하고 5년, 4대강 사업으로 수질 악화와 녹조창궐, 기름유출 등 사고와 물살이 떼죽음 등으로 몸살을 앓던 금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몸을 회복했다. 모래와 자갈, 여울이 드러나고 식생이 어우러진 금강에, 토건 개발을 피해 떠났던 야생생물들도 속속 돌아왔다.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놀라웠다.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다시 발견되고, 물떼새들이 돌아와 산란을 시작했다. 수변에는 수달 발자국, 삵 배설물들이 즐비했고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이 득시글하던 하상 펄밭은 재첩이 사는 모래질로 회복됐다. 금강 인근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녹조와 악취가 사라진 금강을 즐겨 찾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수년간 논의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십 명의 전문 인력들이 동원돼 보 처리방안 안을 만들었다.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보 처리방안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만들었다. 드디어 2021년 1월, 세종보 철거·공주보 부분 철거·백제보 상시개방, 승촌보 상시개방·죽산보 철거를 골자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확정됐다. 2017년 정부 지시를 시작으로 2021년 1월 확정까지 햇수로만 만 4년이 걸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물정책을 정치 정략적 정쟁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발표 하루 만에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건의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 15일 만에 속전속결로 취소 의결했다. 10년 단위 물관리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까지 '자연성 회복'을 삭제하면서 졸속으로 변경했다. 2023년 8월 25일 변경안이 마련되고 채 4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재해 예방을 운운하며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장비가 투입돼 강을 파헤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목도하고 있다. 이제 세종보 공주보가 재가동되면 우리는 수년간 회복된 금강은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 당장 세종보 상류 하중도와 공주보 상류 고마나루에 산란을 위해 터 잡은 물떼새 둥지들은 그대로 수몰되게 된다.

'보 정상화', '재해 예방', '소수력 발전 가동', '댐 추가건설', '하천준설' 등의 모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물 정책은 세계적인 물 정책 추세를 역행하는 최악의 정책이다. 지난 정부의 모든 성과는 무위로 돌리고, 정치 형세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하는 알량하고 질이 낮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치 진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우리는 수문 개방 이후 녹조는 사라지고 수질은 개선됐으며, 자연성이 회복되어 강을 떠났던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4대강 사업 이후 파헤쳐지는 강에서 두 발로 걸으며, 오체투지하며 강의 회복을 염원했다. 가까스로 국민합의로 만든 보 개방을 다시 거짓 강도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강은 녹조가 가득한 악취 펄밭 강이다. 생명의 온기는 사라지고 공허한 기계음만 들리는 죽은 강이다. 흰수마자, 흰목물떼새, 수달과 고라니가 노니는 생명의 강이 아닌, 의미 없는 논쟁만 오가는 더러운 정치몰이 판이다. 우리는 그런 정부에 우리 강을 내어줄 수 없다. 우리의 미래와 안전을 맡길 수도 없다. 이에, 우리는 필사의 각오로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짓고 정부의 악한 정책을 막아서려 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들어라.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설천면 길산리 상길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사)정심회
(사)정심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 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고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수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성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중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천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신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문의면 상장2리,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발팩리, 백두대단보전시민연대,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노현2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사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위례마을살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천안시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